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기독교적 대안

성경적 토지법과 헨리 조지 경제학에 기초하여

A Christian Solution to the Economic Crisis

전강수

- I. 머리말
- II. 성경에 기초한 경제위기 진단
 - 1. 성경에 나타난 경제적 재앙의 경고
 - 2. 성경적 경제법 : 토지법을 중심으로
- III. 조지주의 경제위기론과 한국의 경제위기
 - 1. 조지주의 경제위기론
 - 2. 한국 경제위기의 진단
- IV. 경제위기 해결책
 - 1. 진정한 회개와 토지가치세
 - 2. 토지가치세제의 효과
- V. 맺음말

Abstract

A fundamental cause to the economic crisis is our disobedience to God's economic laws. We have forgotten them or intentionally ignored them. The most important part of the God's economic laws is the land law. God wishes everyone to have an equal right to land use. So, He ordered the Israelites to divide the land of Canaan equally into every family's inheritance. Worrying that their equal rights to use land may be violated, God enacted redemption and the Year of Jubilee.

Today, instead of this biblical land tenure system, the institution of private property in land is accepted in many societies. The Bible says it is the Baal's land tenure system. Actually, the institution of private property in land brings about poverty and cyclical economic depressions by enforcing taxation on many kinds of earned incomes and making land-value rise more rapidly than productivity. Korea's present economic crisis also resulted from the institution of private property in land.

The only way to overcome the economic crisis is to realize God's will, repent our sins and go back to His laws. Henry George's land-value taxation is the best economic policy through which we can go back to the God's laws. God gave us the Bible and Henry George who was filled with the Holy Spirit. We, God's people already have a solution to this economic crisis.

I. 머리말

우리는 지금 1997년 11월 IMF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시작된 경제위기의 한 가운데를 통과하고 있다. 정부는 모든 힘을 경제위기 극복에 쏟아붓고 있고, 교회는 곳곳에서 구국기도회를 개최하고 있다. 정부의 대안은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의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단기적으로는 경기부양책을 실시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고, 교회의 대안은 회개하고 기도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힌 듯하다.

무릇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고 믿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모든 문제에 대해 해답을 갖고 계신다는 것도 믿는다. 그렇다면 이 경제위기를 해결하는 방법까지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것도 믿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과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기독교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교회나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되는가?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적 대안이란 추상적이고 당연한 원칙의 반복이 아니라 정책으로 채택할 정도로 구체성을 띤 대책의 제시를 의미한다.

본 논문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와 같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믿음 위에서 출발한다. 성경에는 그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원칙들과 하나님의 법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드물지만 성경의 정신을 경제학 이론으로까지 발전시킨 경제학자도 존재한다. 나아가 이와 같은 이론에 의해 만들어진 대안을 실행하여 경제적 부흥을 경험한 실제 사례도 다수 존재한다.

회개란 단순히 잘못했다고 뉘우치고 모여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깨닫고 실제로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가는 구체적 열매가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기독교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회개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작업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경제법을 토지법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성경적 토지법의 정신을 기초로 경제

학 이론을 구성한 헨리 조지와 그 후계자들의 경제위기론을 소개한 후, 그것을 기초로 한국 경제위기를 간단하게 진단하고, 마지막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서 성경의 원칙과 헨리 조지의 해결책을 소개하여 그것들이 현 경제위기 극복에 어떤 효과를 발휘할지 살펴보고자 한다.

II. 성경에 기초한 경제위기 진단

1. 성경에 나타난 경제적 재앙의 경고

성경은 하나님이 사회를 통치하는 법을 제정해 놓으셨음을 선포한다. 경제와 관련해서도 하나님의 법이 제정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역사상 유례없는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제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위반하였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회개를 위해서도 절실히 필요한 일이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지켰을 때 받게 될 축복의 약속과 그것을 어겼을 때 받게 될 저주의 경고를 여러 곳에서 발견한다. 필자는 하나님의 경제법과 관련하여 레위기 25장 및 26장에 기록되어 있는 축복과 저주의 약속에 주목하고자 한다.

레위기 25:18은 “너희는 내 법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할 것이라 땅은 산물을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하라”고 선언하고 있다. 경제적 풍요를 약속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경제적 풍요의 약속에는 조건이 붙어 있다. ‘내 법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면’이라는 조건이다. 레위기 25장이 하나님의 경제법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대표적인 장이라는 것은 주지하는 바이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의 법도와 규례로서 하나님의 경제법을 생각하게 된다. 이와 비슷한 약속이 레위기 26:3-5에도 나와 있다.¹⁾

반면 레위기 26:14-39에서는 놀라운 경제적 재앙을 경고하고 있다. 앞의 경제적 풍요의 약속에 조건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재앙의 경고에도 조건이 붙어 있다. ‘청종하지 않을 경우’라는 조건이다. 성경은 하나님 의 경제법을 청종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 재앙을 내릴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재앙이 일회적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재앙에도 불구하고 청종하지 않을 경우에는 7배의 재앙을 내릴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심지어 7배의 재앙의 경고는 네 번씩이나 반복되면서 강화되고 있다.²⁾ 여기서 선포되고 있는 재앙의 내용은 다양하지만 경제적 성격을 가진 것을 뽑아 보면 다음과 같다.

-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16절)
-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20절)
- (들짐승들이) 너희 육축을 멸하며 ... 너희 도로가 황무하리라(22절)
- 내가 너희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26절)
-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29절)
-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33절)
- 너희가 열방 중에서 망하리니 ... 너희 남은 자가 너희 대적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인하여 쇠잔하며 그 열조의 죄로 인하여 그 열조 같이 쇠잔하리라(38절)

1)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하리라”

2) 필자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를 즐겨하시는 무서운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와 뜨거운 사랑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이 하나님의 경제법을 청종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 재앙이 내릴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곳은 비단 레위기만이 아니다. 우리는 비슷한 경고로 성경의 다른 여러 곳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그 가운데 경제적 재앙은 하나님의 경제법을 어긴 직접적 결과라는 것이 가장 분명하게 선포되고 있는 곳은 이사야 5장이다. 이사야 5:9은 레위기 26장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재앙을 예고하고 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녕히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 열흘같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지기에는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그런데 그 바로 앞 절인 이사야 5:8에는 이같은 재앙의 원인이 분명히 나타나 있다.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열흘같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고 한 호멜지기에 간신히 한 에바가 나는 경제적 재앙은 바로 토지를 집중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토지권을 부정하는 행위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뒤에서 자세히 살펴 보겠지만, 성경은 전토에 전토를 더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토지사유제도 = 지주제도를 바알 제도로 규정하고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법을 갖고 계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실제로 성경은 하나님이 그러한 법을 세워놓고 계심을 수없이 이야기한다. 경제위기를 당하여 하나님의 경제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법을 어떻게 어겼는지 생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우리가 뉘우치고 돌아가야 할 곳을 알지 않겠는가?

2. 성경적 경제법 : 토지법을 중심으로

레위기 25장은 성경적 토지법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유명하다.³⁾ 여기에

3) 물론 토지법이 성경적 경제법의 전부는 아니다. 성경에는 부채와 이자, 노동과 임금, 빈곤대책 등 중요한 경제법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토지가 모든 인간활동의 터전이듯이 토지법도 이 모든 경제법의 기초이다. 경제위기 발발의 원인을 찾으려

는 안식년 규정, 회년제도, 열매의 다소에 따른 토지거래제도, 토지무르기 등 중요한 규정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레위기 25장의 정신을 가장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구절은 역시 23절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 구절과 함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 각 지파, 나아가 각 가족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던가를 짐작할 수 있다. 기업의 분할은 단순 면적이 아니라 해당 토지의 쓸모에 따라 행해졌으며,⁴⁾ 기업 분배의 방식은 제비뽑기였다. 하나님의 의도는 각 가족이 평등하게 토지 사용권을 누리도록 하는 데 있었다. 이를 위해 토지의 절대적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며, 토지무르기와 회년제도를 마련해 둔 것이다. 그리고 토지거래 또한 토지 자체의 거래가 아니라 다음 번 회년까지의 사용권의 거래로 한정한 것이다. 거래 계약의 절대성을 신봉하는 우리로서는 토지사용권을 넘긴 당사자와 심지어 그 근처에게까지 아무 조건 없이 언제라도 토지를 무를 수 있도록 인정하는 규정을 선뜻 이해하기는 어렵다. 이것은 토지에 대한 평등한 사용권이 거래 계약의 효력을 능가할 정도로 중요한 이상(理想)이었음을 말해준다.

우리는 토지와 여타 물건들을 전혀 구별하지 않은 채 소유하고 거래하는 제도 가운데 살고 있다. 그러나 성경은 토지를 다른 물건들과 구별하여 특별히 취급하고 있다. 레위기 25:29에는 가옥의 경우 1년 내에 무르지 않으면 산 사람의 영원한 소유가 된다고 하고 있다. 가옥의 경우에는 사람들에게 절대적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헨리 조지는 존 로크(John Locke)를 해석하면서 노동생산물의 사유는 정당하지만 토지의 사유는 부당하다고 주

한다면 이 기본적 경제법의 차원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성경적 토지법을 다룬 기존의 문헌으로서는 대천덕, 「토지와 자유」, 무실, 1989 ; 「신학과 사회」, CUP, 1994 ; 「산골짜기에서 온 편지 V」, 신앙계, 1998 ; Robert V. Andelson & James M. Dawsey 저, 기독교경제학연구회 역, 「새로운 해방의 경제학」, CUP, 1996 ; Frederick Verinder 저, 이 풍 역, 「하나님의 토지법」, CUP, 1996 ; 이 풍, 「모두가 살맛나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진리와 자유, 1997 등을 들 수 있다.

4) Frederick Verinder 저, 이 풍 역, op. cit., p. 60.

장한다.⁵⁾ 레위기가 말하고 있는 바가 바로 이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구별을 두신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로, 토지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다. 따라서 하나님은 토지에 대한 절대적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할 정당한 근거를 갖고 계신다.

둘째로, 토지는 생존의 근거이다. 따라서 그것은 생명과 관련되어 있다. 인간이 공기에 대한 권리를 누릴 수 없다면 죽을 수밖에 없듯이 토지에 대한 권리를 누릴 수 없다면 생존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하나님은 토지사용제가 토지에 대한 모든 사람의 평등한 권리를 부정하고 마침내 그들의 생존을 위협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계신다.

셋째로, 다른 사람의 토지권을 부정하고 그것을 독점할 경우 불로소득이 발생한다. 불로소득의 추구는 대표적인 탐욕의 발로이다. 탐욕은 우상숭배이며(골 3:5, 엡 5:5) 불로소득을 추구하게 만드는 토지사용제는 탐욕에 기초한 불의한 제도이다. 여기서 토지제도는 경제적 차원을 넘어서 영적 차원으로 발전한다. 토지사용제를 바알제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여기서 우리는 [토지사용=불로소득=탐욕=우상숭배]의 연결을 발견한 셈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토지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부여받고 그 위에서 자신의 노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가능한 한 많은 노력소득을 올리기를 원하고 계신다.⁶⁾ 성경적 토지법을 제정하신 목적도 간단히 말하면 불로소득을 차단하고 노력소득을 보장하는 데 있다. 노력소득은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탐욕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는 이것을 이사야 65:21-23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⁷⁾

5) 헨리 조지 저, 김윤상 역, 「진보와 빈곤」, 비봉출판사, 1997, 제7권 제1장 참조

6) 하나님께서 힘써 노력소득을 올리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은 신약 성경 상의 다음과 같은 구절로부터도 확인할 수 있다.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살전 4:11),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종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살후 3:10, 12)

7) 이 구절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대망하는 가운데 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장차 회복하실 세상의 경제질서를 그리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임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소망이 세상 가운데서 토지사용제에 의해 무시되고 있는 것에 대해 분노하신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우상을 섬기는 행위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이웃의 것을 도적질하는 행위이다. 그것은 이웃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자연적 권리를 부정함으로써 그들을 가난으로 내몬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인간이 그 자연적 권리를 박탈당함으로써 어쩔 수 없이 가난으로 내몰리는 것에 대해서도 분노하신다. 토지사용제 하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웃의 것을 도적질함으로써 하나님의 분노와 이웃의 원성을 계속 해서 자아내고 있을 경우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심판하신다. 앞서 살펴본 레위기 25, 26장의 경제적 재앙의 경고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선포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위기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진단하고자 할 경우에 우리는 토지제도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미 토지사용제가 빈곤과 불황의 근본 원인이라는 것을 체계적으로 밝힌 경제학자들이 있다. 헨리 조지와 그의 후계자들(소위 조지리스트)이 그들이다. 사실 신고전학과 경제학으로 무장한 최고의 경제학자들이 포진한 IMF는 물론이고 국내의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1997년 10월까지도 한국의 경제위기를 예견하지 못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조지리스트 경제학자들은 경제위기의 가능성을 분명하게 지적해 왔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적 토지법의 정신을 근대경제학의 용어로 표현했다고 평가되는 헨리 조지 경제학의 경제위기론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III. 조지스트의 경제위기론과 한국의 경제위기

1. 조지스트의 경제위기론

(1) 헨리 조지

헨리 조지의 최대의 관심은 물질적 진보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진행되는 빈곤의 원인을 해명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헨리 조지는 「진보와 빈곤」(*Progress and Poverty*) 제4권에서 물질적 진보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세 가지 요인(즉 인구 증가, 기술 진보, 토지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이 부의 분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한다. 여기서 그는 이 세 가지 요인 모두 지대는 상승시키고 [임금 + 이자⁸⁾]는 압박한다는 것을 밝혀 내고 있다. 헨리 조지는 이것이 토지사유제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경향이며, 따라서 물질적 진보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빈곤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헨리 조지는 주기적으로 발작하는 산업불황, 즉 경제위기는 이러한 일반적인 경향이 강화된 상태라고 주장한다. 일반적 경향의 강화를 야기하는 것은 위의 세 가지 요인 중 마지막의 토지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이다. 인구가 증가하고 개선이 계속되는 사회에서는 토지가치가 계속 상승한다. 그 경우 사회 내부에서는 토지가치 상승이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고, 토지투기가 시작된다. 그러면 토지가치는 정상적인 상승 속도를 초과하여 상승하기 시작한다. 이것이 토지가치의 투기적 상승이다. 이 과정이 심화되어 노동과 자본이 통상의 대가를 얻지 못할 정도로 토지가치가 상승하면 토지와 관련된성이 높은 부문에서부터 생산 중단이 시작된다. 생산 중단은 다른 부문에 대한 수요의 중단으로 이어지고 그것은 다시 생산 중단으로 이어진다. 그 이후 수요 중단과 생산 중단은 연쇄적으로 전 경제에 파급되어 경제위기로 발전한다.

8) 헨리 조지가 말하는 이자는 자본에 대한 대가를 통칭하는 말이다.

요컨대 헨리 조지는 경제위기의 원인을 토지가치가 투기적으로 상승하여 생산을 압박하는 데서 찾았다. 그렇다고 그가 그밖의 원인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그는 예를 들면 복잡한 생산장치, 화폐의 결합, 양적 변화가 심한 상업 신용, 보호관세 등이 경제위기를 발생시키는 주요한 요인됨을 인정한다. 그는 토지가치의 투기적 상승이 많은 요인들 중 최대의 원인이라고 보았다.

경제위기의 진행 양상에 대한 헨리 조지의 설명은 'IMF 사태'의 급습을 경험한 우리들에게는 참으로 인상적이다. 왜냐하면 그는 경제위기가 그야말로 갑작스럽게 발생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헨리 조지의 지적은 마치 1997년 11월 우리에게 일어났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옮겨보는 것이 좋을 성싶다.

모든 면에서 이상 없이 잘 움직이고 상공업이 활기를 띠면서 확장되다가 청천벽력처럼 갑자기 충격이 와서 은행이 붕괴되고 큰 제조업과 상업이 실패한다. 전 산업조직에 큰 충격을 가한 것처럼 실패에 실패가 거듭되며 모든 분야의 취업자가 일자리를 잃고 자본은 수익 없는 증권처럼 전략하고 만다.⁹⁾

헨리 조지는 이와 같은 진행양상을 역 피라미드의 붕괴과정에 비유하고 있다. 토지가치의 투기적 상승이 계속되는 경제는 바닥층만 성장이 제약되고 나머지 층은 계속 커지는 피라미드와 같다. 바닥에서 거부당한 성장력이 위층에서 자리를 찾으려 할 것이므로 당분간은 성장속도가 빠를 것이지만 결국에는 균형이 무너져서 피라미드가 갑작스럽게 붕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토지가치의 상승을 피하여 토지와 관련된성이 희박한 부문으로 노동과 자본이 몰려감에 따라 그 부문을 중심으로 성장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균형이 무너져서 경제는 갑작스럽게 위기에 빠져든다는 것이다.

헨리 조지는 경제위기의 원인과 양상을 밝히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한 걸

9) 헨리 조지 저, 김윤상 역, *op. cit.*, pp. 264-5.

음 더 나아가 경제위기로부터의 회복과정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견해를 제시한다. 그에 의하면, 갑작스러운 경제위기의 발발 이후 상대적 정체기가 지속된다. 그 기간 동안 1) 투기성 토지가치가 하락하고 2) 노동 능률이 향상되며 3) 임금과 이자가 하락하게 되면, 경제는 다시 균형을 회복하고 경제 위기로부터 빠져 나오게 된다. 그러나 경제가 위기를 벗어나면 이때부터 앞서 말한 경제위기의 발발 매커니즘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하고 일정한 기간을 경과한 후 다시 경제위기가 찾아온다. 경제위기가 주기성을 갖는다는 것은 지지하는 바인데, 헨리 조지는 그 주기성의 원인을 분명한 논리를 가지고 해명한 것이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경제위기를 설명하는 데 헨리 조지의 이론은 커다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왜냐하면 태국, 인도네시아, 한국, 일본 등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들은 모두가 위기 이전에 극심한 토지투기를 겪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경제위기의 태풍 가운데서도 여전히 건재한 대만과 싱가포르 등은 각기 다른 방식에 의해서이기는 하지만 토지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토지투기의 여지를 억제해 왔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런데 최근 폴 크루그먼(Paul Krugman)을 비롯한 몇 명의 경제학자들이 아시아 경제위기의 원인으로서는 토지투기를 지목하는 견해를 피력하기는 했지만¹⁰⁾ 신고전학과 경제학이든, 케인즈 경제학이든, 또는 마르크스 경제학이든, 어느 것도 토지투기를 주기적 경제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수미일관한 논리체계를 구성한 경제학은 헨리 조지 경제학 이외에는 없다. 따라서 신고전학과 경제학과 케인즈 경제학에 익숙한 경제학자들이 포진하고 있는 IMF가 경제위기 직전까지도 한국 경제에 대해 낙관적 견해를 피력하고 있었다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¹¹⁾

헨리 조지의 경제위기론은 토지투기가 경제위기의 주요한 원인이라는 점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를 갖지만, 토지투기가 경제위기를 야

10) P. Krugman, "What Happened to Asia?", mimeo, 1998 및 Giancarlo Corsetti, et. al, "What caused the Asian currency and financial crisis?", mimeo, 1998.

11) Fred Harrison ed., *The Losses of Nations*, Othila Press Ltd., 1998, pp. xx-xxi.

기하는 경위에 대해서 너무 단순하게 취급해 버렸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사실 토지가치의 투기적 상승이 생산(혹은 ‘임금+이자’)을 압박한다는 명제는 너무 추상적이라서 좀더 구체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헨리 조지의 사상을 계승한 현대의 조지스트들은 헨리 조지의 명제를 구체화함으로써 조지스트 경제위기론을 한층 풍부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현대 조지스트들의 경제위기론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2) 현대 조지스트들

영국과 미국, 일본 등의 국가에서 18년 주기의 토지가격 및 경기의 변동을 관찰하고, 그것에 기초하여 1992년의 세계적 불황을 예견한 것으로 유명한 프레드 해리슨(Fred Harrison)은 그의 저서 *The Power in the Land*에서 헨리 조지의 경제위기론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하면서 토지가치의 투기적 상승이 경제위기를 초래하는 다양한 경로를 제시하였다.

먼저 그는 토지가치의 투기적 상승이 바로 경제위기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건설 경기를 위축시킨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그에 의하면 건설업은 토지투기가 그것의 유해한 영향을 경제 전반에 확산시키는 하나의 전달장치(transmission mechanism)이다.¹²⁾ 그는 미국, 일본, 영국 등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해 지가가 절정에 달한 후에 건설경기가 퇴조하며 그에 이어 일반 경기가 후퇴하는 규칙성이 실제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사실 헨리 조지도 토지가치의 투기적 상승의 압박을 가장 먼저 받는 부문은 토지와의 관련성이 높은 부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¹³⁾ 건설업이 그러한 부문을 대표한다고 본다면, 해리슨의 명제는 조지의 견해를 발전적으로 계승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해리슨은 토지가치의 투기적 상승은 자금을 토지시장으로 집중시켜 기업들의 자금 확보를 곤란하게 하며 자금에 대한 경제 전체의 수요를 증가시켜 금리를 상승시킴으로써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12) Fred Harrison, *The Power in the Land*, Universe Books, 1983, p. 65.

13) 헨리 조지 저, 김윤상 역, op. cit., p. 264.

지적하였다.¹⁴⁾

셋째, 해리슨은 토지가치의 투기적 상승이 주택 가격과 주택 임대료를 상승시킴으로써 노동자의 가계를 압박하며, 이것은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임금인상 압력을 가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노동자의 소비를 위축시킨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¹⁵⁾

이상 둘째와 셋째에서 해리슨은 토지가치의 투기적 상승이 고임금과 고금리, 혹은 투자와 소비의 위축을 초래하여 경제위기를 발생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헨리 조지에 의해서는 간과되었던 측면이다. 해리슨은 토지가치의 투기적 상승이 직접적으로 생산에 압박을 가하는 경로 외에 다른 시장에 영향을 미쳐 우회적으로 생산을 압박하는 경로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조지스트 경제위기론을 한 단계 발전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해리슨의 견해는 메이슨 개프니(Mason Gaffney)의 견해¹⁶⁾와 결합할 경우 더욱 훌륭한 경제위기론이 된다. 해리슨도 현상을 지적한 바는 있지만,¹⁷⁾ 개프니는 토지가치의 투기적 상승이 금융기관의 토지담보 대출의 관행을 만들어 낸다는 점에 주목하여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밝혀냈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토지담보 대출이 일반화될 경우 토지가치와 대출은 상호 촉진적인 관계에 놓이게 된다. 즉 토지가치의 상승은 대출을 증가시키고 대출의 증가는 다시 토지가치를 상승시킨다.

둘째, 대출금은 종종 더 많은 토지를 구입하는 데 사용된다.

셋째, 대출은 한계생산성이 아니라 담보의 안정성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이것은 자금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한다.

넷째, 토지가치의 변동에 의존하는 대출의 흐름은 매우 불안정하여서 거

14) Fred Harrison, op. cit.(1983), p. 69.

15) Ibid, p. 97-99.

16) Mason Gaffney, "Land as a Distinctive Factor of Production", in N. Tideman ed., *Land and Taxation*, Shephard-Walwyn. 1994, pp. 89-94.

17) Fred Harrison, op. cit.(1983), p. 68.

시경제적 불안정성을 낳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요컨대 토지가치의 투기적 상승은 금융시장을 통하여 미시적 관점에서는 기업경영과 자금 배분의 비효율을 발생시키고 거시적 관점에서는 불안정성을 확대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개프니의 견해는 토지투기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그것이 경제위기를 초래하는 또 다른 중요한 경로를 밝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주지하다시피 토지가치의 투기적 상승, 기업과 금융기관의 비효율, 거시경제의 불안정성 등은 경제위기를 전후하여 한국 경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이다.

이 외에도 개프니는 토지가치의 결정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것의 변동은 높은 진폭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점, 그리고 토지가치의 투기적 상승은 미래의 더 높은 수요를 예상하여 토지를 과잉 개발하게 함으로써 자본 투자의 성격을 왜곡시키는 점 등, 토지투기가 거시경제적 불안정성을 초래하는 다른 중요한 경로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상과 같은 해리슨과 개프니의 연구에 의해 조지스트 경제위기론은 단순히 토지가치의 투기적 상승이 생산을 압박하여 경제위기를 낳는다는 추상적인 명제를 제시하는 단계를 넘어서 토지가치의 투기적 상승이 경제위기로 이어지는 구체적 과정과 그 다양한 경로를 설명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게 되었다.

90년대 들어 조지스트로서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프레드 폴드베리(Fred E. Foldvary)는 최근 발표한 논문에서 해리슨이나 개프니와는 다른 방식으로 경제위기론을 전개하고 있다.¹⁸⁾ 그의 논문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토지가치의 투기적 상승을 중시하는 조지스트의 이론에 통화량의 변화에 따른 이자율의 움직임을 중시하는 오스트리아 학파의 이론을 결합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폴드베리가 말하는 경제위기의 발생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경제가 확장되기 시작하면서 은행은 가용 저축이 보장하는 것보다 더 많이 신용

18) Fred E. Foldvary, "The Business Cycle: A Georgist-Austrian Synthesis",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Sociology*, Vol 56, No. 4., 1997.

을 증대시킨다. 이것은 인위적으로 이자율을 하락시키고, 낮은 이자율은 투자, 특히 상층 자본재(higher order capital goods)¹⁹⁾에의 투자를 촉진한다. 경제가 활황에 접어들면 토지투기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여전히 값싼 신용은 토지투기를 뒷받침한다. 그러면 지대와 토지가격은 투기적으로 상승한다. 그러나 통화 팽창이 중단되고 인플레이에 대한 예상이 자금 시장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 이자율은 상승한다. 토지가격과 이자율의 상승으로 인한 비용의 상승은 이제 신규 투자를 억제하기 시작한다. 비로소 과거에 이루어졌던 상층 자본재에 대한 투자는 잘못된 것임이 판명된다(소위 과잉투자). 투자의 중단이 수요의 위축을 야기하면서 드디어 경기 후퇴가 시작된다. 일단 경기 후퇴가 시작되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대출금은 담보 자산의 가치를 초과하기 시작한다. 그리하여 부동산 시장의 붕괴는 은행의 도산으로 이어진다.

폴드베리는 오스트리아 학파는 경기 변동의 금융적 측면과 자본재의 역할을, 그리고 조지스트는 실물적²⁰⁾ 측면을 설명한다고 보고, 양자의 결합을 통하여 경기변동에 관한 보다 포괄적인 설명을 시도하였던 것이다. 한국의 경제위기가 외환위기의 형태로 시작되었다는 점을 생각할 때 폴드베리의 이와 같은 시도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조지스트들의 경제위기론에 의하면 토지사용제는 토지투기를 유발하여 생산을 압박하는 동시에 금융시장과 노동시장 등 경제의 다른 부문과 거시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쳐서 경제구조의 취약성을 심화시킴으로써 경제위기를 유발한다. 탐욕에 기초한 불의한 토지제도는 현대 경제가 경험하고 있는 빈곤과 주기적 불황의 주범인 것이다. 하나님의 법을 청종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 재앙을 모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

19) 자본재를 생산하는 자본재로서, 건물, 인프라스트럭처, 내구 자본재 등이 대표적이다.

20) 여기서 실물적(real)이란 비금융적임을 의미하는 동시에 부동산('real' estate) 시장과 투기의 역할을 강조하는 말이다.

고는 이렇게 경제학적 논리의 형태로도 분명하게 선포되어 왔다.

2. 한국 경제위기의 진단²¹⁾

이와 같은 조지스트의 경제위기론에 비추어 한국 경제의 현실을 살펴보면 그들의 주장이 매우 타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도 심각한 불황의 앞에는 항상 토지투기의 열풍이 불었다. 지금의 경제위기 앞에는 80년대 말의 토지투기가 놓여 있다. 다른 불황 때와는 달리 토지투기와 경제위기 간에 시차가 존재하지만, 그것은 90년대 한국 경제를 둘러싼 국제경제 환경이 너무도 좋아서 위기의 발발을 지연시켜 왔기 때문이다. 토지가치의 투기적 상승에 의해 배태되고 누적되어 온 경제구조의 취약성은 97년 한보·기아 사태로 대외 신인도가 하락하고 아시아 금융위기가 발발하자 일거에 폭발하였던 것이다. 외견상 단순한 외환위기로 보이는 현재의 경제위기는 조지스트의 시각에서 보면 토지투기를 다스리지 못한 정책 실패에서 오는 필연적 현상이다.

우리는 수년 전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설명하기 위한 틀로서 ‘고비용-저효율 구조론’이 제기되었던 것을 기억한다. 고비용 구조의 요인들로는 고지가, 고임금, 고금리, 고물류비용 등을 이야기한다. 저효율 구조의 요인들로는 금융기관과 기업의 비효율적인 경영을 이야기한다. 그런데 조지스트의 경제위기론에 입각해서 보면 이 모든 요인들의 배후에 토지가치의 투기적 상승이라는 요인이 가로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필자가 최근 영남대학교 경제학과와 한동근 교수와 함께 행한 실증분석의 결과,²²⁾ 한국에서는 지가의 변동이 임금, 금리, 물류비용, 대출, 기업의 토지구

21) 여기서는 한국 경제위기에 대한 본격적인 진단은 하지 않고, 단지 조지스트의 경제위기론이 한국 경제의 현실을 잘 설명하고 있다는 점을 간단하게 확인하는 정도로 그친다. 조지스트의 시각에서 한국 경제위기에 대한 본격적인 진단을 하고 있는 연구로서는 전강수·한동근, “한국의 토지문제와 경제위기”, 한국경제학회 제8회 국제학술대회 발표 논문, 1998 참조.

입 등 제 요인의 변동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이 이 모든 요인들의 원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토지가치의 투기적 상승은 실제로 고금리, 고임금, 고물류비용 등 고비용 구조의 요인들을 야기하였을 뿐 아니라 무분별한 대출과 비효율적인 기업경영 등 저효율 구조의 요인들을 형성시켜 온 중요한 원인이었던 것이다. 현재의 경제위기는 토지투기로 인해 취약해질대로 취약해져 있는 한국 경제가 밖으로부터 아시아 금융위기는 태풍이 몰아쳐 오자 쓰러져 버린 결과이다.

IV. 경제위기 해결책

1. 진정한 회개와 토지가치세

재앙을 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가? 성경이 말하는 바는 간단하다. 어떤 곳에서는 죄와 허물을 자복하고 현재의 재앙이 하나님을 대적인 결과임을 깨닫고 낮아져야 한다고 말한다.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청종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어디든 말하는 바는 동일하다. 하나님의 법을 떠났던 죄를 자백하고 다시 그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네 육축의 새끼와 네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네 열조를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다.(신 29:9-10)

경제학적 용어로 표현하자면, 토지사유제를 허용하여 토지 불로소득을 추구해 왔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자백하고, 만민이 하나님이 주신 평등한 토지권을 향유할 수 있는 토지제도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회개의 도달점이다.

22) Ibid.

되어야 할 것이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회년제도가 50년마다 정기적으로 평등한 토지권을 회복하는 역할을 수행했었다. 그렇다면 지금은 현대판 회년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라 해야 하겠다.

헨리 조지의 토지가치세제²³⁾는 현대판 회년제도라고 하기에 합당하다.²⁴⁾ 토지가치세제란 매년 토지가치(=지대)를 전액 조세를 통하여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실 헨리 조지는 토지가치세제를 제안하기 전에 토지를 공동소유로 해야 한다는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토지사유제를 철폐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안이다. 그러나 헨리 조지는 현실적으로 토지공유제가 결함을 갖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그것은 필요 이상의 충격을 야기하고 정부 기구를 쓸데없이 확대시킬 우려가 있는 지나친 방법이라는 것이다. 토지가치세제는 토지공유제보다도 단순하고 쉽고 조용하면서도 토지공유의 효과를 그대로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즉 이것은 형식적으로 토지소유권은 그대로 두지만 토지 불로소득을 환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토지사유제의 문제를 해결한다. 그렇게 하여 정수한 조세수입은 사회 구성원에게 평등하게 분배되도록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보장한다. 그리고 이 토지가치세 수입은 정부의 총경비를 감당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다른 조세는 모두 철폐할 수 있다. 더욱이 토지가치세 이외의 모든 조세는 대부분 노력소득에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하지도 않다. 그리하여 토지가치세제는 자연스럽게 토지가치 이외의 대상에 부과하는 모든 조세를 철폐하자는 토지단일세 주장으로 이어진다.

이와 같이 토지가치세를 통하여 토지 불로소득이 사적으로 전유되는 것을 막고 그것이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평등하게 분배되도록 하는 것은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범죄(=우상 숭배)와 그 탐욕에 희생되는 사람들의

23) 헨리 조지의 토지가치세제에 관해 자세한 것은 헨리 조지 저, 김윤상 역, *op. cit.*, 제7권 - 제9권 참조.

24) 신현우는 헨리 조지의 토지가치세제가 회년제도의 신약적 적용이라는 것을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회년법의 검토를 통해 논증하고 있다.(신현우, “회년과 토지 - 성경에 나타난 회년법”, 서울대 토지학교 자료집, 1998).

피해를 동시에 근절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해방을 가져다준다. 이 제도가 현대판 화전제도라고 일컬어지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2. 토지가치세제의 효과

토지가치세제는 정의로운 제도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토지에 대한 자연적 권리를 완전히 인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개인의 것(노동생산물)은 개인이, 사회의 것(토지가치=지대)은 사회가 갖도록 한다. 사유재산의 원칙을 빙자하여 이 제도에 반대하는 것은 그 원칙의 본래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하더라도 무시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토지가치세제는 효율을 높이는 제도이다. 그것은 노력소득에 부과되는 각종 조세를 폐지함으로써 소비와 투자를 자극하며 토지 독점과 토지투기를 억제함으로써 토지의 생산적 이용 기회를 높인다. 그것은 소득분배의 평등을 촉진함으로써 사회 도처에서 낭비를 제거하고 노동 능률을 제고한다. 나아가 그것은 정부의 기능을 대폭 간소화함으로써 경제 전체의 효율을 높인다.

성경적으로 볼 때 토지가치세제는 탐욕(=우상숭배)을 버리고 하나님의 경제법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도의 도입은 경제적 재앙의 극복을 위한 첩경이다. 그러면 이 제도가 어떻게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경제학적 설명을 추가해 보기로 하자.

토지가치세제는 장기적으로 볼 때 토지투기를 억제함으로써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해소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고지가, 고임금, 고금리, 고물류 비용 등, 고비용 구조의 요인들과 [이윤+토지가치]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의 비효율적 투자 패턴과 금융기관의 토지담보 대출 관행과 같은 저효율 구조의 요인들을 한꺼번에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 볼 때, 자금의 경제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소비와 투자를 자극하고 생산 중대의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데, 토지가치세 제도에 수반되는 조세철폐 조치는 그와 같은 역할에 적격이다. 다만, 토지단일세와

같은 강력한 조치를 단기간 내에 제도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세와 토지보유세 강화’라는 형태로 완화하여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감세와 토지보유세 강화를 묶어서 실시하는 것은 경기 부양과 건전 재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다. 감세를 통하여 경제주체들에게 유인을 제공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세수의 감소를 토지보유세의 강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토지가치세 제도(혹은 감세와 토지보유세 강화)는 장기적으로는 경제위기를 발생시키는 고비용-저효율의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단기적으로는 경기 부양과 건전 재정의 유지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최선의 경제위기 해결책이라 할 수 있다.

경제위기의 와중에서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그러나 경기부양책은 경제위기의 근본 원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행해질 수도 있고 오히려 그 근본 원인을 유지·강화하는 방향으로 행해질 수도 있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감세와 토지보유세 강화를 시행하면 경제위기의 근본 원인을 해소하면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다.²⁵⁾ 그러나 이 이외의 경기부양책들 중에는 경기는 일시적으로 부양시킬지 모르지만 경제위기의 근본 원인을 오히려 유지·강화시킬 우려가 있는 조치들이 있다. 최근 정부가 실시하기 시작한 각종의 부동산 시장 부양책과 정부 지출 확대정책이 그에 해당한다. 이 정책들은 일시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양자 모두 토지가치의 투기적 상승이라는 경제위기의 근본 원인을 유지·강화함으로써 경제구조의 개혁을 저지하는 결정적 부작용을 낳는다.²⁶⁾ 중병에 걸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다소 고통

25) 그러나 한국 정부는 감세에는 거의 관심이 없는 듯하며, 토지보유세 강화는 불로소득을 차단하여 경제정의를 세운다는 차원에서 - 이것이 경제위기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차원에서 검토되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라 - 준비해 왔으나 그것도 최근에는 토지시장의 정상화 이후로 미루기로 결정해 버렸다.

26) 프레드 폴드베리는 정부 지출 확대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는 케인즈식 공황대책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다. “존 메이나드 케인즈는 총수요를 자극하기 위해서 공공 사업에 대한 공공 지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근본적

스럽고 힘들더라도 병의 근본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한 후 그것을 신속하게 도려내는 수술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 정부는 지금 바로 토지 투기라는 암종을 도려내야 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부정확한 진단과 그로 인한 주변 부위에 대한 수술, 그리고 진통제의 투입에 열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해를 피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첨언하자면, 조지스트의 처방은 현재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의 구조조정,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한 정리해고제의 도입 등, 각종의 구조조정 정책과 결코 모순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구조조정 정책에 조지스트의 처방이 결합될 경우 그것은 구조조정의 효과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이고, 부작용을 극소화하면서 경제를 회복의 길로 유도할 것이다.

토지가치세제는 전세계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시행되어 왔다.²⁷⁾ 각 경우에 이 제도가 어떤 효과를 낳았는지 구체적으로 대답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는 않지만, 시행된 곳마다 빈곤을 경감시키고 불황과 실업을 해소하며, 도시를 부흥시키는 긍정적 결과를 발생시켰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제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던 지역은 흔치 않다. 이 제도의 효과를 기억하며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쇠퇴할 때마다 그것을 폐지하려는 지주들의 시도가 있었다. 지주들의 뜻대로 이 제도가 폐지된 곳에서는 예외없

으로 결합이 있고 자기교정의 힘이 없다고 여겨지고 있는 시장경제를 교정하는 데 그러한 정부의 자극이 필요하다고 그의 추종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공공 사업은 신용 팽창과 결합하여 자주 부동산 시장에서의 투기를 유발하며 그것은 버락경기(booms and busts)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 정부 지출의 증가는 ... 경제지대의 징수에 의해 상쇄되지 않는다면 항상 토지가치의 급속한 상승이라는 형태의 경제적 충격을 만들어낸다.”(Fred E. Foldvary, op. cit., pp.537-8).

27) 토지가치세제의 시행 사례에 관해 자세한 것은 Robert V. Andelson & James M. Dawsey 저, 기독교경제학연구회 역, op. cit. 및 Robert V. Andelson ed., *Land-Value Taxation Around the World* 2nd edition, Robert Schalkenbach Foundation, 1997 참조

이 빈곤과 실업과 경제적 후퇴가 나타났다.

V. 맺음말

경제위기의 근본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경제법을 청종하지 않은 데 있다. 성경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청종하지 않을 때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경고해 두고 있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것을 의도적으로 무시해 왔다. 하나님의 경제법의 핵심은 토지법에 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토지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누리기를 바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각 지파별로 또 각 가족별로 기업을 갖도록 하셨다. 모든 가족이 기업을 부여받고 토지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누리는 상태가 깨어지는 것을 우려하여 토지무르기와 희년제도를 제정하셨다. 오늘날 이와 같은 성경적 토지제도는 많은 경우에 무시되고 대신 바알의 토지제도, 즉 토지사유제가 마치 당연한 제도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토지사유제는 자본주의 하에서 노력소득에 대한 과세를 불가피하게 하고 생산성 상승을 능가하는 토지가치(=지대)의 상승을 야기함으로써, 빈곤과 주기적 불황을 초래한다. 즉 하나님의 토지법을 버리고 바알의 토지제도를 채택한 결과인 경제적 재앙이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위기의 근본 원인도 한국 경제가 토지사유제에 입각해 있다는 데 있다.

한국의 경우 1950년에 농지개혁을 실시함으로써 식민지시대에 형성된 대토지사유제를 타파하였다. 그것만으로도 한국은 제3세계 국가들 가운데 유례없는 고도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은 토지사유제 자체는 그대로 유지시켰다.²⁸⁾ 토지 불로소득이 여전히 토지소유자들에게 귀속되는 상태에서 1960년대 이후 공업화가 추진되면서 한국 사회는 주기적으로 토

28) 한국 농지개혁의 이와 같은 성격에 관해서는 전강수, “헨리 조지 이론에 비추어 본 한국의 농지개혁”, 『통합연구』 29호.

지 불로소득을 노린 토지투기의 열풍에 사로잡혔다. 토지투기의 열풍은 그 때마다 경제불황을 야기하였으며, 장기적으로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심화시켰다.

교회는 이와 같은 한국 사회 전체의 범죄를 깨닫지 못했다. 더욱이 한국 사회 전체의 흐름을 받아들여 직접 토지투기의 열풍에 빠져들기도 하였다.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고 그것을 행하며 세상에 전파해야 할 교회가 오히려 비알의 법을 허용하고 또 적극적으로 추구해 왔던 것이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우리가 깨닫기를 기다리고 계셨으나 우리는 깨닫지 못했다. 마침내 그분은 이전의 경제불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가혹한 경제위기를 통해 우리를 징계하시기에 이르렀다.

경제위기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뿐이다.²⁹⁾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뉘우치며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헨리 조지가 제안한 토지가치세제는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과 헨리 조지라는 성령충만한 경제학자를 주셨다. 교회는 이미 경제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다. 남은 일은 하나님의 법을 실행하고 전파하며 세상을 설득하는 일이다.

29) 물론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현재의 경제위기는 극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더 큰 위기의 씨앗을 내포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참고문헌

- 대천덕, 「토지와 자유」, 무실, 1989.
- , 「신학과 사회」, CUP, 1994.
- , 「산꼴짜기에서 온 편지 V」, 신앙계, 1998.
- 신현우, “회년과 토지-성경에 나타난 회년법”, 서울대 토지학교자료집, 1998.
- 이진순, 「경제개혁론」, 비봉출판사, 1995.
- 이 풍, 「모두가 살맛나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진리와 자유, 1997.
- 전강수, “헨리 조지 이론에 비추어 본 한국의 농지개혁”, 「통합연구」 29호
- 전강수·한동근, “한국의 토지문제와 경제위기”, 한국경제학회 제8회 국제
학술대회 발표논문, 1998.
- 재정경제원, 「'97 경제위기의 원인·대응·결과」, 1998.
-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 촉진방안과 중기비전」,
1998.
- 헨리 조지 저, 김윤상 역, 「진보와 빈곤」, 비봉출판사, 1997.
- Frederick Verinder 지음, 이풍 옮김, 「하나님의 토지법」, CUP, 1996.
- Robert V. Andelson & James M. Dawsey 저, 기독교경제학연구회 역,
「새로운 해방의 경제학」, CUP, 1996.
- Giancarlo Corsetti et. al, “What caused the Asian currency and
financial crisis?”, mimeo, 1998.
- Fred E. Foldvary, “The Business Cycle: A Georgist-Austrian Synthesis”,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Sociology, Vol 56, No. 4,
- Mason Gaffney, “Land as a Distinctive Factor of Production”, in N.
Tideman ed., *Land and Taxation*, Shephard-Walwyn, 1994.
- Fred Harrison, *The Power in the Land*, Universe Books, 1983.
- Fred Harrison ed., *The Losses of Nations*, Othila Press Ltd., 1998.
- Paul Krugman, “What Happened to Asia?”, mimeo, 1998.

Robert V. Andelson ed., *Land-Value Taxation Around the World* 2nd edition, Robert Schalkenbach Foundation, 1997.



■ 전강수 ■

1959년 출생. 서울대 및 동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 취득. 미국 Virginia-Tech 경제학과 Visiting Scholar(1997년), 대구 기독교경제학연구회 총무 역임, 현재 <성경적 토지정의를 위한 모임> 회장, 대구 효성가톨릭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 역서에 「현대경제학과 청지기 윤리」(IVP, 공역), 「새로운 해방의 경제학」(CUP, 공역) 등 외에 다수논문.